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시간 : 8/15(월)

미사 시간	06:30, 10:30, 19:00
-------	---------------------



8월 15일은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평생 동정이신 성모마리아께서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영혼과 육신아 함께 승천하심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로마 전례력의 4대 축일 중 하나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축일입니다.
(봉헌금 있습니다.)

◎ 알 림

- 8월 25일(목) 19시 40분 강당에서 사목협의회가 있습니다.
- 추석 합동 위령 미사에물은 반드시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8월부터 유아세례 및 태중의 아기 축복 일정 변경 안내
 - 유아세례 :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1시
 - 태중아기 축복 : 매월 셋째 토요일 오전 11시
 - 접수 및 문의 : 본당 사무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1Cu	8/14(일), 12시	강 당
2Cu	8/14(일), 13시 30분	강 당
울뜨레아	8/21(일), 11시 40분	강 당
3Cu	8/21(일), 13시	강 당

◎ 청소년부

- 통합복사단 도보순례
 - 일 시 : 8월 14일(일) ~ 15일(월)
 - 장 소 : 춘천 운봉산장
 - 문 의 : 구민서 010-8193-1514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7월 31일 현재 ₩10,030,000 납부되었습니다.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8/21)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9월 시작 예정	청 소	16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8월 3일 ~ 8월 9일)

교 무 금	7,535,000원
주일헌금	4,465,500원
감사헌금	김종란40만원 이화성10만원 송○○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8/14	박혜선	오성환 장희석	장익근 김성해
8/21	최경희	조홍환 도현만	최웅조 구민서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8/14	최영만	최창열 박형순	오광운	김광수
8/21	이화봉	김인기	이계명	이운영 박용환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결과보다는 풍성한 결실을

193. 모든 정치인은 이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을 수행하지만, 그 또한 언제나 인간입니다. 그는 날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한 인격체이고 “현대 세계가 그 기술 진보로 점점 더 인간의 욕망 충족을 합리화하고 인간의 욕망을 다양한 서비스들로 분류하고 또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을 그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게 될수록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 존재를 자신의 마음, 고통, 문제, 기쁨, 가족을 지닌 사람으로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가 아프다는 것은 그 질병을 치료하려 할 때에야 비로소 알려질 것입니다. 그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그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려 할 때에, 그에게 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에게 숙소를 제공하려 할 때에, 그에게 여가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에게 이를 마련해 줄 때에, 비로소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형제자매로 사랑하는 것은, 곧 이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194. 정치에도 온유한 사랑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서로 가까이 다가가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이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눈과 귀와 손에 이르게 되는 움직임입니다. ……온유함은 가장 용기 있고 강인함 사람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정치 활동을 통하여 “가장 작은 이들, 가장 약한 이들, 가장 가난한 이들이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호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 형제자매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195. 이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언제나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때로는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은 지극히 거룩하고 우리 사랑과 헌신을 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내 삶의 봉헌은 의롭게 됩니다. 하느님의 충실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벽을 허물고 우리 마음이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품은 꿈과 계획의 원대한 목표들은 기껏해야 일부만 달성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정치를 단순한 권력 추구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모든 행동, 다른 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아낌없는 노력은 무의미하지 않으며, 고통스러운 인내는 쓸모없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힘처럼 세상을 감돌고 있습니다.”